

전주지역 기업 LA 진출 · 경제교류 협력 강화

전주시-LA한인상공회의소, LA 한인기업 비즈니스 확장 지원 · 상호 지원 체계 구축 등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미국 LA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인 한인상공인들과 손잡고 강한 경제전주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에서 펼쳐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 글로벌한인상공인들과 함께 지역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수출 통로를 개척하면서 '강한 경제전주'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시와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는 24일 완산구 노송동 소재 한 식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동완 회장을 비롯한 LA한인상공회의소 이사진 1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주를 찾은 LA한인상공회의소와 전주지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LA 한인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상호 지원 체계 구축 △기업 활동에 미치는 정책 변화, 시장 동향, 산업 전망 등의 정보 공유 △주정부, 의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전주시와 LA한인상공회의소는 24일 완산구 노송동 소재 한 식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동완 회장을 비롯한 LA한인상공회의소 이사진 1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시는 협약을 바탕으로 미국 LA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명 이상의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 홍보 활동을 통해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동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의 100만 동포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전주 중소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향후 전주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 상생 발전 방향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2025년을 '전주해의 마케팅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한 한인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관광산업과 드론산업(드론축구) 등 전주의 강점에 대한 글로벌 홍보 및 해외시장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는 24일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전주시의회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이성국(호자5동) 의원 주최로 지난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토론회

시의회 온혜정·이성국 의원 주최... 발전 방향 등 모색

전주시의회는 24일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전주시의회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이성국(호자5동) 의원 주최로 지난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전주시 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안선우 초빙교수의 '전주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또 김미진 전북도민일보 문화교육부장(좌장), 문화예술교육공간 오이아 이소정 대표, 클럽쵸쵸 조예찬 대표, 물결서사 임주아 대표, 김주희 전주문화재단 예술놀이팀장, 이한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교육문화팀 차장 등이 참

여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 토론을 펼쳤다.

온혜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공공기관과 기획자, 예술가 사이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히 지역 문화예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의미가 깊었다"고 평가했다.

이성국 의원은 "전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해 예술가와 기획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도심속 거점 공원에 '맨발걷기길' 확대

전주시 완산구, 11월까지 백로공원·태평어린이공원에 추가 조성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도심속 거점 공원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맨발걷기길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4200만 원을 투입해 효천지구 백로공원과 태평동 태평어린이공원 등 도심공원 두 곳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대상 공원의 기존 산책로를 재정비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먼저 백로공원의 경우 노후화된 야자매트를 철거한 후 맨발로 걷기 편한 길로 바꾼다. 또, 기존에 있는 퍼즐러를 맨발걷기길 노선에 포함시켜 시민



중화산동 선너머공원 맨발걷기길

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또한 태평어린이공원은 이용도가 낮

은 산책로를 활용해 마사토 산책길과 침방구간(황돛길)을 일부 조성하고, 인근에 세족장과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중화산동 선너머공원과 완산구청 인근 효자공원 등 2곳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한 바 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도심내 공원에 조성되는 맨발걷기길이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더 많은 분이 건강과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가 전주지역 각 통장협의회와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시의회·통장협의회, 주민자치 활성화 논의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전주지역 각 통장협의회와 각종 의견을 수렴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남관우 의장은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덕진구 통장협의회, 완산구통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시장 방향과 행정업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했다.

남 의장은 "전주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 효자1동 마을관리공동체, 수원특례시 선진지 견학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마을관리공동체(대표 김계천)는 국내 우수 선진 사례를 현장에서 학습하고 느끼기 위해 수원특례시 행궁동을 견학했다.

오래된 건물 등으로 도시 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킨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이날 마을관리공동체 회원 일동은



수원 행궁동 어울림센터를 방문해 우

수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화성행궁·담벼락 갤러리, 팔부자 거리 등 '행궁동 왕의 골목'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문화·예술이 공존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된 지역골목 명소 곳곳을 방문했다.

/김욱기 기자

낭만이깃든 대둔산 케이블카

전주매일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55 (산북리 산23-30)

☎ 063-263-6621~2